

#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박찬표 지음

2007년 4월 17일 발행 | 신국판 | 468쪽 | 18,000원

이 책은 한국 현대 정치 체제의 원형이 주조되었다고 생각되는 해방 3년기 미군정 하에서의 남한국가 형성 과정을 추적한 것이다. 그 초점은 분단국가 형성보다는 남한국가 형성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분단이라는 민족주의적 문제의식보다는 민주주의의 문제의식에서 이 시기를 조망했음을 의미한다.

남한국가 형성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반공 체제의 등장이 한 사회 공동체에 가했던 폭력성과 국민국가의 정체성에 가했던 왜곡을 재확인하게 된다. 반공 체제 형성이란, 단지 특정 이념을 배제하는 추상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 공동체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기본권, 인간적 존엄은 물론 생명 그 자체를 부정하는 폭압적 과정이었다. 또한 반공 체제 형성이란 ‘역사에 뿌리를 둔 국민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의된 국민적 정체성’을 외부에서 강제하는 것이었다. 즉 그것은 한 사회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동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받아들여야 하는 민주적 태도를 배양할 토대를 근저에서부터 허무는 것이었다.